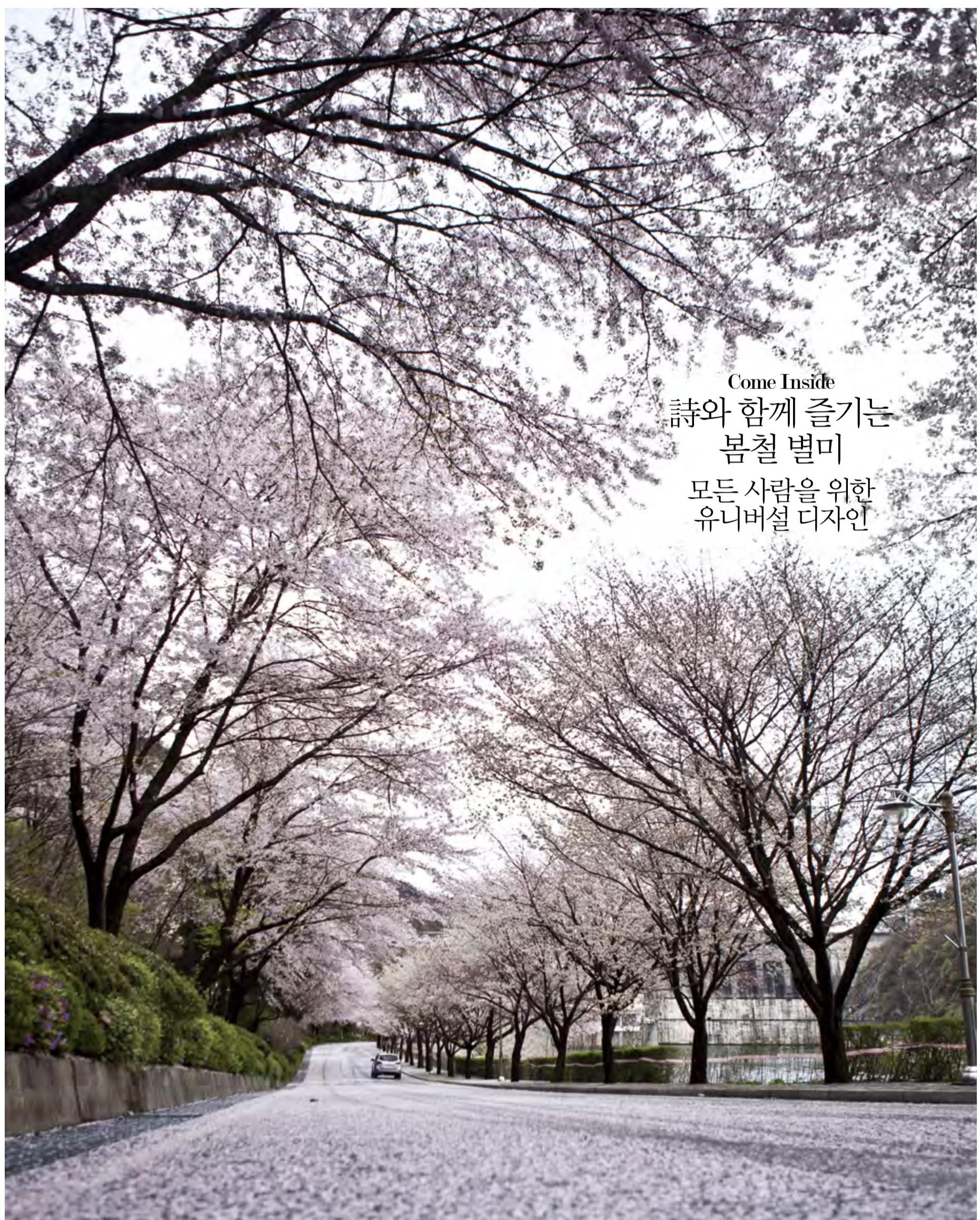


SENIOR 조선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APRIL
2013
VOL.12

Come Inside
詩와 함께 즐기는
봄철 별미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REMIND HONEYMOON

〈시니어조선〉·캐나다관광청과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그때 그 약속,
기egr 기cher주세요!

“나중에 더 근사한 곳으로 신혼여행 다시 가자.”

신혼 첫날밤 신부에게 이런 약속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내와의 첫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내신 건 아닌가요.

이즈음 다시 떠나는 허니문을 통해 당시의 설렘을 추억하고,

두 사람이 함께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이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합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미항 도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더없이 경이로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리한 온타리오주에서 즐기는 리마인드 허니문!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커플에게

각각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상 만 44세 이상의 건강한 심신을 지닌 한국 국적의 부부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방법 〈시니어조선〉 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honeymoontocanada@gmail.com으로 송부

우편 접수 서울 종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구관 3층 시니어조선 (우 100-756)
(우편물 하단에 '리마인드 허니문 응모' 표기 요망)

일정 **1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신청기간 2013년 4월 1일 ~ 5월 5일

당첨자 발표 2013년 5월 15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허니문 일정 2013년 6월 3일 ~ 6월 9일

2차 **온타리오주**

신청기간 2013년 6월 1일 ~ 7월 5일

당첨자 발표 2013년 7월 15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허니문 일정 2013년 8월 3일 ~ 8월 9일

지원내역 캐나다관광청에서 왕복항공권, 호텔, 식사 및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가는 〈시니어조선〉에 게재됩니다.

기타사항 응모 사연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작의 저작자산권은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에 귀속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자정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협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관광청 (www.hellobc.co.kr), 온타리오주 관광청 (www.ontariotravel.net/kr)



* 여행지에 관한 소개는 본지 14~1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inside

VOL.12 APRIL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 06 GALLERY** 멋진 남자, 선비의 삶터를 쫓다
기개와 지조, 풍류와 해학을 지닌 조선의 선비가 그리워지는 요즘, 이동준 작가의 사진으로 선비정신을 간직한 옛 터전을 만나본다.
- 08 TRAVEL** 詩와 함께 즐기는 봄철 별미
따사로운 봄 내음을 품아 훌쩍 떠나보자. 전국 곳곳의 별미와 그보다 더 맛깔난 한 편의 시가 있는 풍경 속으로!
- 10 PEOPLE** 한길사 김언호 대표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을 놓고 싶다는 출판인 김언호. 지난해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책박물관을 개관한 그가 빠져든 책의 유토피아.
- 12 LOOK** 패션의 종결자, 클래식 슈즈
그 옛날 광화문 거리를 누비던 '모던보이' 뭇지않은 멋쟁이로 당신을 변신시켜줄 클래식 슈즈를 소개한다.
- 14 JOY OF LIFE** 그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이 함께하는 리마인드 하니문 프로젝트.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하니문을 선물한다. 그곳으로 떠나보자.
- 16 INDUSTRY** 유니버설 디자인과 구부러진 숟가락
시니어 용품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견된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등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에 대해 알아보자.
- 18 THIS MAN** 신용락 변호사
이 남자의 '핀잔'은 마흔이 넘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그는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고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대체 왜?
- 19 HEALTH** 대상포진이 중년을 위협한다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포진과 통증의 강도는 심각한데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20 MONEY** 뜯다! 나무 재테크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고루한 투자에서 벗어나 나무와 친해지자. '나무 재테크'로 자연 속 여유와 부를 한끼번에 누리기.
- 21 WEALTH** 부자를 위한 세테크 전략
부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세금.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 22 SENIOR CARE** 부모님을 혼자 두지 마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고예방법.
- 23 BULLETIN** 이달의 소식
일산에 전통미를 살린 특1급 호텔이 문을 열었고, 재미 조각가 준 배가 신작을 선보인다. 이달에 체크해야 할 일찬 정보들.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l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n.roh@yourstage.com
남미영 willena@chosun.com
C.정상미디어
디자인 별디자인
미술교정 김경애 aejiwon@naver.com
교열 최귀열 gwiyeo61@hanmail.net

MARKETING & ADVERTIS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ff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리티피에스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아울렛,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리온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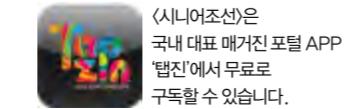
The Art of Handcraft



THE BALVENIE®
SINGLE MALT SCOTCH WHISKY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02-2152-1600 경고: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탱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GALLERY



병산서원 들문

병산서원 서재
경의재(敬義齋)에서
들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배롱나무가 한눈에
들어온다. 들문이 액자가
되어 사이에 들어서는
배롱나무가 또 다른 풍광을
그려내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듯하다.



멋진 남자, 선비 그들의 삶터를 쫓다

조선시대 선비는 청렴과 청빈을 우선 가치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검약과 절제의 미덕을 실천했다. 할 말은 하는 서릿발 같은 기개,
일관된 지조 그리고 삶을 즐기는 풍류와 해학을 지닌
선비는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겼다.
정신보다는 외양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조선의 선비는 문득 그리워지는 대상이다.



도산서원 대문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이 노년에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해 후학을 양성하며 기거하던 곳이다. 유생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농운정사, 서원의 출판사로 각종 목판본과 책을 보관했던 장판각과 광명실,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조선 선비의 정신을 갈고 닦고자 했던 유생들과 여러 가지 소임을 가지고 이곳을 지키기던 이들 모두가 매일같이 드나들었을 대문.



목계서원에 편 홍매화

1687년(숙종 13년)에 창건된
목계서원은 조선 초기 성종
때 대사성(大司成)을 역임한
김계행과 세종 때 사헌부
정령(掌令)을 지낸 옥고를
봉향하는 곳이다. 1869년(고종
6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후에 강당과 문루인
읍청루와 진덕문, 동재(東齋)
건물 등을 복원했다. 서원 옆에는
보백당 김계행의 종가 있다.



봄의 찻장

작아꽃 한 송이를
상 위에 올려 봄날의
정취를 담아낸 찻장.
조선의 선비들에게 차는
음안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양해 주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정의
표시로 차를 선물했고,
시를 지을 때나 술을 마신
뒤에도 마음을 다스리고자
차를 마셨다.



후조당

조선 선조 때의 문신
김부필(1516~1577)이
지었다고 전하는 광산 김씨
예인파 종택에 딸린 별청 건물.
'후조당'이라는 현판은 스승인
퇴계 이황의 글씨다. 원래는
안동시 예안면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인해 1974년
동쪽으로 2km 떨어진 안동시
외동면으로 이전했다.

사진가 이동춘은 1987년부터 10년간 출판사 디자인하우스 사진기자로 여행, 리빙, 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이후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종가 사진을 촬영하며 선현들의 의(義)와 정신을 오늘의 시선으로 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종가, 선비·정신과 예를 간직한 집'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열었고, 지난 2월에는 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그리고 4월에는 불가리아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직항 취항

2013년 6월 3일부터 연중 주 3회 운항

■ 인천~토론토 운항 스케줄

구간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요일
인천~토론토	18:30	18:10	월, 목, 토
토론토~인천	14:05	16:35 +1	수, 금, 일

* 2013년 6월 3일부터 연중 운항 (Boeing 777-300)

* 토론토 경유 캐나다 및 미국, 중남미 주요도시까지
편리한 연결 가능



에어캐나다 한국지점
서울) 02-3788-0100
부산) 051-463-7671
www.aircanada.co.kr



The Best International
Airline in North America
three years in a row
now has four stars

TRAVEL

詩와 함께 즐기는 봄철 별미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픈 계절. 따사로운 봄 내용이 입안까지 깊숙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좋으리.

꽃과 나무와 바람과 그 속에서 난 먹거리와 먹거리보다 더 맛깔난 한 편의 시가 있는 풍경.

앞대 개포가에선 또 나죽한 뱃고동이 운다
집집마다 부뚜막에선 행병이 불고 야야; 주꾸미
배가 들었구나, 할머니 짭짤 입맛을 다신다
빙초산 맛이 입에 들처럼 친하고 새콤한 것이
달기가 햇빼꾸기 소리 같다

아버지 주꾸미 한 끗을 사오셨다 어머니 고추장
된장을 버무려 또 부뚜막의 행병을 기울이신다
주꾸미 대가리를 씹을 때마다 톡톡 알이 터지면서
아삭아삭 씹는 맛; 아버지 하신 말씀
니 할매는 이 맛을 두고 어찌 갔을 거나

* 행병: 식초 병

- 송수권 '봄날' 中

충남 서천 | 주꾸미

주꾸미는 산란을 앞두고 알이 단단히 영그는 지금이 제철이다. 주꾸미 일번지로 통하는 서천 홍원항으로 가자.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주꾸미를 재료로 볶음, 회, 무침, 샤브샤브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고추장과 간장 등으로 매콤하게 맛을 낸 주꾸미볶음은 봄철 입맛을 돋우기에 안성맞춤. 서천 주꾸미는 유독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기로 유명한데, 비결은 다른 아닌 '소라방'. 서천에서는 소라껍데기를 줄에 묶어, 마치 낚시하듯 주꾸미를 산 채로 잡아올리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주꾸미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스타미나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양강장제 성분인 타우린이 무려 오정어의 5배 이상 함유돼 있다고 하니 원기 회복에도 유품.



충남 태안 | 꽃게

봄은 바야흐로 꽃게의 계절이기도 하다. 산란을 앞두고 알이 통통히 오른 게맛을 보지 않고 어찌 봄을 났다 할 수 있을까. 태안 인홍항(신진도항)으로 가면 무침, 향, 짬 등 다양한 꽃게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안홍항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 집산지다. 하지만 알아둘 것! 작은 항구인 채석포항에서 잡아 올린 꽃게가 현지인들에게 더 인기라는 사실. 맛에서 한 수 위라는 후문이다. 속이 꽉 찬 봄꽃게로 만든 요리라면 어떤 것이라도 구미를 당길 테지만, 그래도 태안의 명물은 뭐니 뭐니 해도 간장게장이다. 밥도둑 중의 밥도둑. 항구를 한 바퀴 돋아온다면 게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찾아나서는 게 현명하다. 인홍항 부근의 '화해당'이 유명하다. 군청 소재지인 태안읍내로 가도 이름난 게장 전문 식당 몇 곳을 만날 수 있다.



Tip 동백꽃·주꾸미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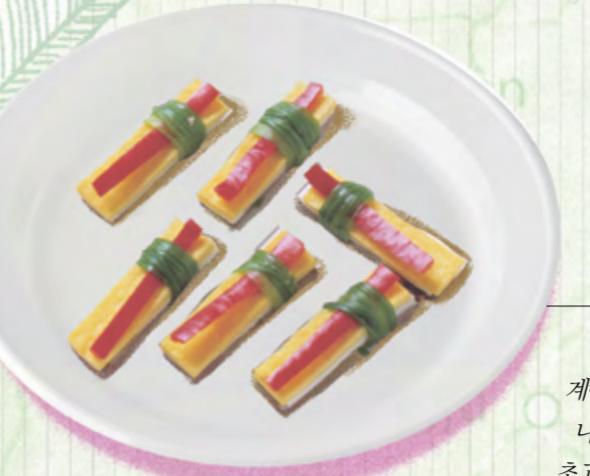
홍원항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미량포구 동백나무숲이 나온다. 이즈음 동백꽃의 출백은 하나님 선물인 빛을 터뜨려 입뿐 아니라 눈까지 호사를 누리게 한다. 주꾸미도 맛보고 꽃구경도 할 수 있는 동백꽃·주꾸미축제를 놓치지 말자. 올해 14회를 맞는 동백꽃·주꾸미축제는 주꾸미 낚시, 주꾸미 요리경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기득하다.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Tip 태안류립꽃축제

사계절 꽃축제도 좋은 구경거리다. 태안에서는 봄 툴립, 여름 백합, 가을 달리야 등 매 계절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태안 꽃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봄에는 자그마치 3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올봄 투립꽃축제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부제는 '수줍은 사랑의 고백'. 투립과 유채,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각종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풍경 속에서 기만에 로맨틱한 남편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서천군립문화체육관
한국민족문화재활용센터



경북 청도 | 미나리

짭싸름한 향과 아삭아삭 씹히는 질감이 살아 있는 봄미나리.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웰빙식품이다. 해독 및 혈액 정화에 특효, 특별한 양념 없이 날 것으로 혹은 데쳐서 먹으면 봄미나리의 맛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미나리, 하면 떠오르는 곳은 청도 한재. 청도읍 초현리, 음지리, 평양지 일대를 한재라고 한다. 이 일대는 마을 전체가 미나리밭이나 다름없다. 밭에서 금방 채취한 싱싱한 미나리를 그 자리에서 쌈 삼아 고기와 겉들여 먹는 맛이 쫄쫄하다. 화악산 중턱에서 나는 암반지하수로 재배해 특유의 향이 강하고 당도가 높은 한재 미나리. 미나리를 이용한 요리 중에서는 미나리강회가 대표적이다. 옛 궁중음식의 일종인 미나리강회는 끓는 물에 데친 미나리 줄기로 한데 포갠 편우, 달걀지단, 고추, 버섯 등의 재료를 감아 쌈 것. 봄 막 걸리 안주로 제격이다.

Tip 청도소싸움축제

매년 이맘때 청도군 화양읍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는 축제가 힘찬이다. 소싸움은 청도의 대표적인 민속행사이자 정부가 인정한 문화관광축제. 90여 마리 쌩쓰소의 현란한 경기로 관전하는 것도 이불의 색다른 묘미가 될 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소싸움축제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바다를 떠다 된장을 풀고
바늘에 봄을 달아 낚은 도다리를 넣는다
쑥을 뜯어다 행궈 넣고

봄도다리쑥국 한 그릇이면 되겠다
뻘에 숨어서 기며 세상을 한쪽으로만 흘겨보다가
눈이 한켠에 몰린 것들
덤불쑥마냥 마음이 빼어
이 사람 저 사람 치대는 것들이라면
봄도다리쑥국 한 순갈만 떠먹어봐도 알겠다
남녘 바다에서 깨어난 봄이
저 어죽과 어떻게 눈을 맞춰 봄바다에 춤추게 하는지를
해쑥 한 잎이라도 다칠세라국을 끓여내
거칠고 메마른 몸들 대접하는 그의 레시피를

- 윤성학 '봄도다리쑥국' 中



미나리파릇하게 데쳐
계란지단으로 떠를 두르고
나란히 접시에 오른 다음
초고추장으로 연지 쟁어먹던
미나리강회

그날, 그대가
내 국그릇 앞으로
밀어주었지요

(...)

오, 오늘 저녁
문득 생각나네요
미나리강회
푸릇한 그대의 이마.
- 정두리 '미나리강회' 中



몸집이 통통하고 후덕하게 생긴 아줌마가
솜씨 있게 끓여내는 멀치 된장찌개와 쌈
그것이 단연 유품가는 처방이라고
때로는 외지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소개도 하지만
입맛을 돋우며 보글보글 끓을 때
된장냄새 풍기며 우리들의 인정도 함께 끓는다.
보라, 뜨거운 뚝배기 속에 와글거리며
죽은 멀치가 다시 살아나 펄떡거리는
저 싱싱한 멀치떼를 멀치떼의 환호를.
푸른 상추나 다시마로 쌈을 때마다
푸들거리는 심해의 막은 출렁거리며
몸구석구석 쌓인 피로를 깨끗이 지워버린다.
- 이상개 '멀치쌈밥집' 中



경남 사천 | 도다리

봄의 진미를 논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어족이 바로 도다리. 경남 해안지방, 그중에서도 사천의 도다리 맛은 단연 최고로 꼽힌다. 삼천포 앞바다의 가센 물살로 인해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 이맘때 삼천포항 일대 어시장에는 온통 도다리 일색인데, 좌판에서 싱싱한 횟감을 구입해 인근 식당에서 요리값을 치르고 먹는 편이 가장 편리하다. 회로 갓 떠낸 도다리의 쫄깃한 살점을 세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 맛이란.. 구수한 된장에 물이 오른 도다리를 쑥과 함께 끓여낸 도다리쑥국 역시 봄이 가기 전에 반드시 맛봐야 할 필수요리다. 알싸한 해쑥 내용이 배어든 생선의 보드라운 살점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야말로 맛의 또 다른 경지가 바로 여기에 있나니.

Tip 와룡문화제

사천에서는 매년 봄 와룡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가 열리는 선진리성까지는 삼천포항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띠워 악적을 무찌른 곳으로 잘 알려진 선진리성은 사천만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단지이기도 한 이곳은 축제 기간 내내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축제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천포항과 남해군 청선면을 연결하는 청선·삼천포대교를 빠뜨리지 말 것. 한려수도의 빼어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부산 기장 | 멀치

19세기(자산어보)에서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금세 죽어버리는 성질 급한 멀치를 '멸할 멸(滅)'자를 써 '灭어(滅魚)'라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봄에 한껏 물이 오른 멀치를 싱싱한 회로 즐기려면 직접 산지로 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즈음 부산 대변항은 육질이 연한 '기장멸치'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로 활기를 띤다. 대변항은 기장읍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지만 동해안 일대에서 가장 큰 멀치어장을 거느린 곳. 이 일대 바다의 풍부한 플랑크톤 덕분에 멀치나 미역의 풍미가 남다르다. 빠와 내장을 발라낸 기장멸치에 미나리, 쑥갓, 깻잎 등의 갖은 재료를 넣어 발갛게 버무려낸 멀치회는 매콤새콤한 맛이 유품. 멀치회만큼 유명한 것은 젓갈. 멀치 액으로 김치를 담그면 그 또한 남해의 정취가 깊은 멀미가 된다.

Tip 기장멸치축제

멸치 성어기인 봄이면 대변항 일원에서 기장멸치축제가 열린다. 멀기리 무료 체험을 비롯해 풍어제, 미당국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불볕이 한창 무르익은 5월 2일부터 5월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직 미정. 대변항 인근 오랑대도 기장의 자랑거리 중 하나.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기암절벽과 그 주변의 흐드러진 유채꽃에서 따뜻한 남쪽 지방의 흥취를 만끽할 수 있다.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이곳은 일출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PEOPLE

김언호 대표는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으며, 1976년 한길사를 창립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파주출판도시건설에 참여했고, 1990년 중반부터는 예술인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한국출판인회를 창설하고, 2005년에는 한국·중국·일본·대만·총통 등 동아시아 인문학 출판인들과 동아시아출판인회의를 조직했으며, 2011년부터 파주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책축제 '파주북소리' 공동위원장장을 맡고 있다. 최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직책이 더해져 책과 더불어 가는 그의 행보가 더욱 바빠졌다.



우리 생활의 한 가운데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을 놓고 싶다

한길사 김언호 대표

책을 읽고 저자와 토론하며 정신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출판인의 역할이라는 김언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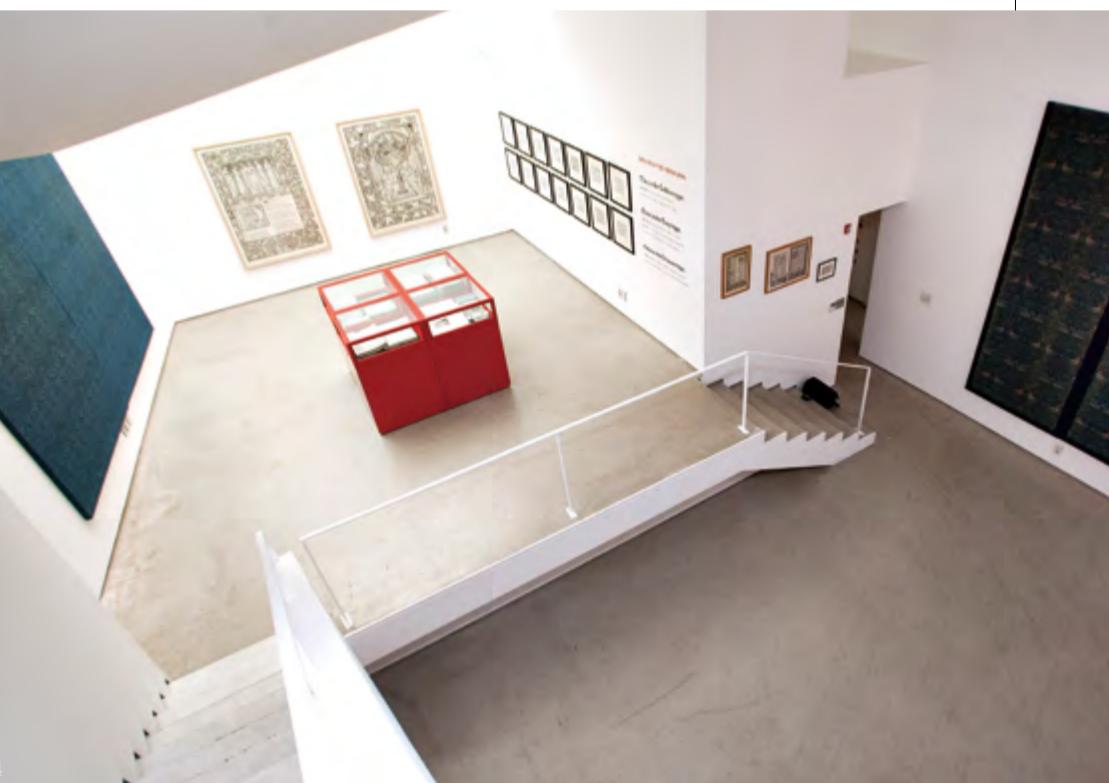
한길사를 창립한 이래 37년째 책에 파묻혀 사는 그는 책 속 유토피아 예찬론자다.

책을 만드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를 만났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인들의 정신과 사상,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을 함께 담론하는 공간으로서 한길책박물관을 열었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젊은이들이 디지털에 힘몰되어 책을 놓아버렸다.” 한길사 김언호 대표의 첫마디였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이야기는 출판문화의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출판문화 창출을 위한 계획과 시도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다웠다. 그는 우리나라 인문사상의 대표적 출판사 한길사를 37년간 이끌고 그대로 '한걸같이' 이끌어 오고,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헤이리 예술마을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가치있고 필요한 일이다 싶으면 열정을 갖고 추진하는 그에게 비판론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듯 보인다.

“책은 여러 기능을 한다.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간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게 한다. 재미있는 오락을 제공한다. 개인적·사회적 삶에 요구되는 사상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책으로부터 얻는다. 한 시대 한 사회를 진보시키는 살아있는 이론과 사상을 창출해내는 것은 책을 통해 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김 대표에게 책은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 시골 고향집에는 책이 흔치 않았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진학하면서 그간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 다른 아님 보수동 책방거리. 책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

홀했기에 시간만 생기면 그의 발길은 늘 그곳을 향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상경한 뒤에는 청계천, 인사동 책방거리를 기웃거리며 현책을 구입했다. 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돈이 생기면 책을 샀다. 1975년 '동아투위' 사건으로 타의에 의해 언론을 떠나게 됐지만 전진위복이 되었다. 출판사를 내면서 책과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책박물관은 영혼에 영양을 주는 공간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 책을 향한 김 대표의 마음은 식을 줄을 모른다. 헤이리 북하우스에 개관한 한길책 박물관은 사랑의 증표와 같다.

“한국 지성사의 중요한 인물인 함석헌 선생을 비롯해 출간하는 책의 80%가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를 다루는 인문학 서적이다. 우리가 만든 오래된 책들, 어려운 시절 겪었던 책들, 겉열에 걸려 결국 출판하지 못했던 책들, 저자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육필 원고…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여준다면 젊은이들을 위한 정신 교육의 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박물관은 화석화된 곳이 아니다. 아름답고 오래된 책, 그 오래된 책의 향기를 느끼며 영혼에 영양을 주는 공간이다.”

책박물관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출판 역사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장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책을 공유하기 위한 곳이기도 하

다. 여행이나 업무 차 해외에 나가면 그는 책과 관련된 지역이나 전시장, 고서점을 꼭 찾는다. 그러다 만난 윌리엄 모리스! 19세기 후반에 살았던 윌리엄 모리스는 시인·작화가이며 건축가·자본주의 물질만능을 비판한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책의 장인'이다. 김 대표는 모리스의 책을 처음 본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한다.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싶은 게 책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고.

“좋은 콘텐츠를 아름다운 그릇에 담으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책의 기능이 시공간을 넘어 지식과 정신을 창출·전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아름다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윌리엄 모리스의 책은 아름다운 문자로 편집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이다.”

김 대표는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초서 저작집〉을 비롯해 윌리엄 모리스의 책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외에 각기

다른 삽화와 화려한 장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된 〈천일야화〉, 화가 쿠스타브 도레의 삽화책 원본, 18~19세기에 발행된 신문·잡지 등 자신이 수집한 많은 자료를 여러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은 현재 한길책박물관 전시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길책박물관은 단순히 소장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의 역사를 통해 옛 장인들의 지혜와 책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출판도시는 지식과 문화에 관한 담론을 나누는 공간

“출판인들과 더불어 출판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책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로, 왜 이렇게 나서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책도 하고 반성도 해본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출판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출판문화를 통해 시대와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최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만큼 그의 출판문화운동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출판 관련 업체 160여 곳이 모인 파주출판도시가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내는 이들만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이곳을 독자와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의 사옥 1층에 책방을 만드는 '책방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북소리 조직위원장장을 맡아 2011년부터 독자, 저자, 출판인이 함께하는 지식축제 '파주북(book)소리'를 개최하고 있다.

“출판도시를 그저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출판단지'가 아닌 지식과 문화예술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대한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사람들이 만나 대화·토론하고 공연을 즐기면서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일종의 '열린 대학(Open University)'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1 출판도시 내 자리한 한길사 사옥 김언호 대표 사무실에서. 2 헤이리 북하우스는 2,3층으로 편안하게 걸어 올리기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3,4 윌리엄 모리스의 〈초서 저작집〉 세계 각국에서 출간된 〈천일야화〉 등 국내에서 전시 중인 헤이리 고서를 전시 중인 헤이리 한길책박물관.

5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책 중 하나로 꽂기 되는 〈초서 저작집〉 윌리엄 모리스의 목판 석표자, 테두리 장식화, 머리글자 등 보인다.

LOOK

패션의 종결자 클래식 슈즈

클래식 슈즈가 돌아왔다. 기본에 충실하되 다양한 스타일로 변주된 디자인은 패션을 완성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듯. 밝은 브라운 색상의 레이스업 슈즈에서부터 둥크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광화문 거리를 누비던 '모던보이' 뜻지않은 멋쟁이로 변신시켜줄 아이템이다. 최고의 기죽을 무두질하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봄 신사의 품격과 스타일을 돋보이게 할 클래식 슈즈를 소개한다.



JOY of LIFE

그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한다. 세계에서 손꼽는 미항도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더없이 경이로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리한 온타리오주로 떠나는 제2의 신혼 여행지. 그곳으로 미리 가본다.



6월에 떠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녀 감성을 간직한
아내를 위한 로맨틱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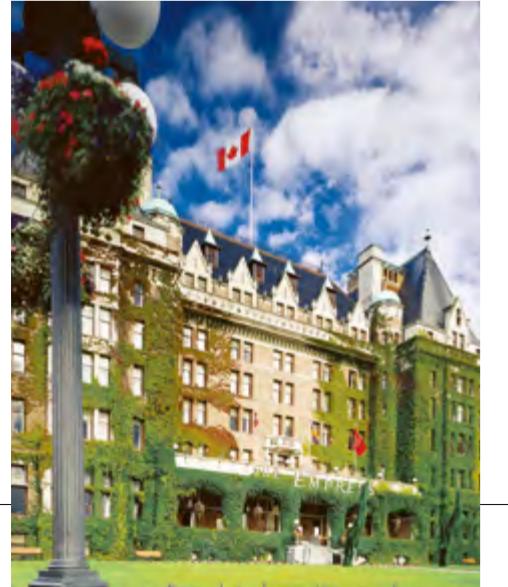


20km,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이곳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토드만에 도착한 로버트 부차트와 제니 부차트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 '벤베누토(Benvenuto, 이탈리아어로 환영한다는 뜻)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석회암 채석장을 개간해 이탈리아 꽃인 스위트피와 장미를 심으며 주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부차트 부부의 정원은 지금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정원으로 자리 잡았다. 인공적인 느낌을 덜기 위해 꽃과 나무의 풋말을 없앴으며, 궁금한 식물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인포메이션 센터에 보여주면 알려준다. 가드닝에 관심이 많거나 은퇴 후 전원 속에서 부차트 부부처럼 정원을 가꾸는 노후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차트 공원 답사는 필수다.

밴쿠버 그랜빌 섬에서의 데이트

빅토리아에서 비행기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한다. 고전적인 영국 분위기의 화창하고 따뜻한 기후까지 더해져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꼽힌다. 정원의 도시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봄이면 도시 전체에 꽃이 만발하는데,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새하얀 꽃마차를 타고 아름다운 항구와 웅장한 중세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빅토리아 시내를 둘러볼 것을 권한다. 특히 빅토리아의 명물 꽃마차는 산책 코스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미와 코콜릿이 준비되는 로맨틱 코스도 있으므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샐러드 아벤틸을 선사하고자 한다면 기억해둘 것. 어두워진 후에도 꽃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야경을 감상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빅토리아에서 눈길을 끄는 건축물은 단연 페어몬트 앤프레스 호텔이다. 담쟁이덩굴이 드리운 석조건물은 1908년에 완성한 빅토리아 최고(最古)의 호텔로 영국 여왕이 묵었던 곳답게 고풍스럽고 우아한 외관을 보여준다. 하버뷰 객실에서 요트가 줄지어 늘어선 이너하버 전망을 바라보는 경험과 더불어 놓칠 수 없는 것은 페어몬트 앤프레스 호텔에서의 애프터눈 티. 햇살이 따스한 오후, 스콘·샌드위치·타르트·초콜릿 등과 함께 향기로운 차 한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자.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대표적 관광 명소 부차트 가든(The Butchart Gardens)은 환상의 정원 그 자체. 빅토리아에서

www.hellobc.co.kr
여행상품 문의 02-2179-2518



8월에 떠나는 온타리오주
대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부부애를 다지는 여행



장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빅토리아풍 나이아가라온 더 레이크, 세계적인 부호들의 휴양지 천섬(Thousand Islands) 크루즈, 도시 속의 세계라고 불리는 토론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이다. 원주민 언어로 '천둥소리를 내는 물기둥'이라는 뜻인 나이아가라는 그 수량이 1분에 육조 100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묘사된다. 인디언들만 알고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백인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678년이다. 이후 신대륙 대자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고, 나폴레옹의 남동생이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온 이후 세계적인 허니문 지역으로 각광받았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포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대자연 앞에서 곁의 누군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파크웨이를 따라 1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지역이 나온다.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폭포 주변과는 달리 이곳은 고색창연한 영국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포도밭이 햇살 아래 드넓게 펼쳐져 여유와 낭만만이 느껴진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장엄하고 아찔한 불거리에 비하자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는 여행지에서 모처럼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자전거나 관광 마차를 타고 시내를 천천히 둘러보기로 제격이다.

천섬은 깅스턴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불거리다. 천 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 천섬이라고 불리는데, 총 18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나무 세 그루만 섬을 수 있으면 섬으로 인정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많은 주택이 들어선 것까지 섬의 크기도 여러 가지다. 일부는 캐나다령이고 일부는 미국령으로 섬마다 계약된 국기로 소속을 구분할 수 있다. 크루즈를 타고 천섬을 한가로이 가로지르고 있노라면 양쪽으로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전 세계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토론토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온타리오주의 주도다. 나이아가라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를 여행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마지막 도시이기도 하다. 토론토는 인디언 말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멋진 조화를 이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었다. 토론토를 여행하다 보면 도시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마천루 속에 고풍스러운 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현대적인 건



물이 UFO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거리에는 다양한 인종이 오고 가고, 고요히 반짝이는 크고 작은 호수들은 분주한 도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이튼 센터는 캐나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쇼핑몰이고, 블루어 요크빌은 토론토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지역이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백화점인 더 베이, 명품 숍, 고급 부티크, 갤러리 등이 들어선 블루어 요크빌은 패션과 디자인, 쇠신 트렌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8km에 달하는 토론토 도심의 지하보도 PATH는 1200개의 상점이 입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곳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 없이 쇼핑하기에 좋다. 다운타운 근처의 디스틸리리 역사지구(Distillery Historic District)는 디자인 숍과 아트 갤러리, 수공예 스튜디오들이 많아 예술작품과 독특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토론토는 다문화 도시답게 음식 문화도 다양하다. 토론토에만 9000여 개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식문화 또한 메트로폴리스의 모습을 대변한다. CN타워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와인 저장고를 보유한 레스토랑(Top of Toronto Revolving Restaurant)이 있는데, 토론토의 전망을 360도 감상하며 즐기는 식사가 일품이다. www.ontariotravel.net.kr 여행상품 문의 02-2179-2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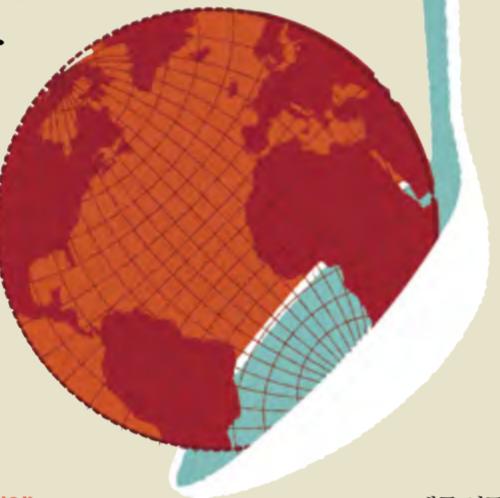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커플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응모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2~3페이지 또는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http://senior.chosun.com/event>)를 참고하세요.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INDUSTRY

유니버설 디자인과 구부러진 숟가락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니어 용품 산업의 전망이 밝다. 이미 몇몇 대기업은 시니어 용품 시장에 출시표를 던진 상태다. 시니어 용품 산업의 본격적인 질적·양적 성장이 예견된다.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최근 들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바로 베트남전쟁과 북유럽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다. 베트남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국 장병들은 고국으로 속속 귀환했고, 북유럽의 노인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제품과 주거공간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1980년에 미국의 한 건축가가 처음 언급했다. 유럽 등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만큼은 동일하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분야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제품 디자인 차원을 넘어 건축과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주제는

전통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4대 원칙은 지원성, 접근성, 수용성, 안정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평한 사용,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등 그 원칙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주제는

세를 염두에 둔다면, 90도로 구부러진 숟가락은 적어도 공평한 사용이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국내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디자인이라고 내놓은 제품이 실제로는 타깃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령자조차 고개를 돌리는 제품도 있다. 고령친화 기능성에 매몰돼 제품 본연의 보편성을 잊어버렸거나, 직관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자는 물론 아이들과 여성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 누가 설명해줄지 않아도 그 사용법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품,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을 통해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고 별다른 버튼도 필요 없이 음성으로 작동되는 컴퓨터다. 그 누구도 이 제품이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종전에 출시된 어떠한 제품보다 시니어에게 접근성이 높고 직관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이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구부러진 숟가락만이 아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꼽으라면 글로벌 주방기구 브랜드 옥소(OXO)를 들 수 있다. 옥소는 미국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며, 미국 주방용품 1위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옥소는 10년 만에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이제는 전 세계 주방용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노약자나 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게 설계된 디자인의 뻬른 성장 요인이다. 옥소는 유니버설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왜 주방기구는 사용하기 어려울까? 왜 주방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까?' 설립자 샘 파버는 손에 관절염이 있어 주방기구 사용에 애를 먹는 그의 아내를 생각하며 새로운 개념의 주방기구를 고안했다.



손에 물 묻힐 필요 없는 야채 탈수기

옥소 아채 탈수기[OXO Salad Spinner]
물에 씻은 야채를 힘들이지 않고 탈수할 수 있는 주방기구. 한 손으로도 쉽게 작동되며, 야채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링이 달려 있다. 작동법은 매우 간단하다. 손잡이를 긴장히 누르면 탈수기가 돌아가면서 야채에 머금은 물기가 빠져며, 두께에 달려 있는 브레이크로 탈수기를 멈춘 후 야채를 끼내면 된다.



허리를 숙일 필요 없는 계량컵

옥소 굽 그림 계량컵[OXO 2Cup Angled Measuring Cup]
허리를 숙일 필요 없는 계량컵. 비스듬한 표면에 계량숫자가 표시돼 있어 선 채로 위에서 빠도 계량이 가능하다. 부드럽고 미끄럼지 않은 소재로 손잡이를 제작해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준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들



도로 폰이지 740[Doro PhoneEasy® 740]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웨덴 휴대폰 제조기업 도로(Doro)가 만들었다. 크고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돼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부담스러운 시니어들에게 적합하다. 뉴스 검색, 메시지 교환, 사진 전송, 인터넷 등의 조작이 수월하고 전화나 문자 전송이 편리하도록 별도의 슬라이드 키패드가 장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디자인 회사 베리데이(Veryday)가 디자인했으며, iF 제품 디자인 어워드 2013(iF Product Design Award 2013)에서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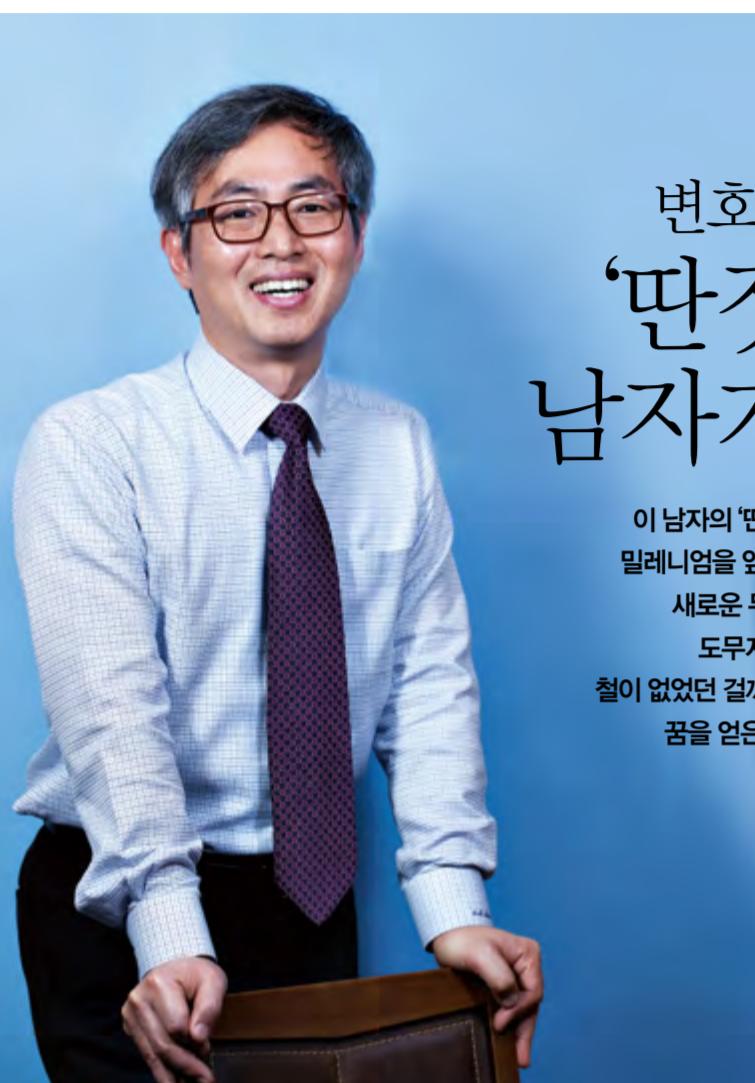


테우코 콤비 유닛 383[Teuco Combi Units 383]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인체공학적 설계의 월풀 목욕. 목욕 측면에 유리문을 달아 목조 벽을 넘어가기 부담스러운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도 쉽고 안전하게 목욕 안내 들어갈 수 있다. 목욕 유리문은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유리를 썼다. 또 목욕 본체 외벽은 오크 우드 패널로 처리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이탈리아 목욕 전문 기업 테우코(Teuco)의 제품이다.



어른과 아이 모두 앉을 수 있는 의자 6474 페이지 체어 [6474 Pages Chair]
색다른 방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 고정된 여러 침의 방식을 원하는 높이에 따라 등받이로 넘겨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면 된다. 방식을 넘기는 형태가 미치 책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 이름이 페이지(Pages)다. 방식을 넘길 때마다 달라지는 의자 색상은 보너스 도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일본인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 유닛 '6474'의 아이디어 기구다.

THIS MAN



변호사 신용락 '딴짓' 하는 남자가 즐겁다

이 남자의 '딴짓'은 마흔이 넘어 시작됐다.
밀레니엄을 앞둔 세상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고는
도무지 배길 수 없었다는 그.
절이 없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는 철을 버린 대신
꿈을 얻은 셈이다. 대체 어떤 꿈을?

새벽골프 저는 스물일곱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른 살부터 꿈과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로로 건강을 해쳤어요. 1991년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당시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재판부였죠. 급기야 간질환을 얻게 되었고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요양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무렵 마침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행스럽게 대학교수로 있는 형 친구가 소개한 수련원에서 불교식 기수련을 하면서 몸 상태가 호전되었는데, 수련원 방법원으로 올라온 후 수련을 계획리하니 다시 일이 힘에 부쳤어요. 1997년 즈음 단독판사를 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재판을 늘워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숨과 짜증이 진뜩 묻은 목소리에 스스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는 재판을 망칠 것 같고 '내가 쓰러지면 어찌' 기록 걱정도 됐죠. 그래서 1998년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집도 사무실 근처로 옮겼고요. 당시는 하루에 10시간씩 짐을 자도 피곤이 물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영망이었습니다. 식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은 쉽지 않았죠.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게 된 기가 골프입니다. 제 건강을 염려한 친구 따라 새벽골프를 나가게 된 거예요. 마침 집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5시에 모여 골프를 쳐 보았는데, 의외로 할 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해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쉬워지고 전과는 달리 누워 있는 것이 깊숙해졌죠. 그래서 연습장에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골프의 묘미를 알게 됐습니다. 워낙 운동신경이 부족한 대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지만, 골프는 달랐어요. 순수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종의 멘탈 스포츠죠. 대전 시절 기수련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웃음)… 여러분으로 제게 딱 맞았습니다.

마흔에 떠난 유학 경희대학교 골프레저산업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다음 2000년 7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골프 명문 샌디에이고 골프 아카데미에 입학했죠. 미국 골프산업계 전반에 이 학교 출신이 2만 명 이상 포진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있는 전문대학교입니다. 그곳에서 티칭과 매니지먼트 과정을 복수 전공했어요. 골프 실력이 늘었고 골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았던 직업을 거쳐 레슨 프로를 꿈꾸는 전업자, 은퇴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덜 치기로 만들어요. 그러나 성공할 수밖에요. 미국에서 만난 기수 인순이 씨가 그려더군요. 성공하는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같은 범위에 있는 강금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누구나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제게는 가족의 가장, 변호사라는 직업과 골프라는 꿈이 그랬어요. 그것들을 모아낸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지금의 제 꿈은 한 10년 안에 좋은 골프장 하나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에요. 아마도 그곳에서 인생의 제3막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시점으로 필드에 버는 변호사 3년 차에 떠나서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대너리온을 잘했어요. 기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억을 남기고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고, 저는 막연했던 희망을 꿈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할 능력을 키웠다고나 할까요.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새벽골프를 함께 치던 엠버들이요? 그 친구들은 워낙 고수들이라 줄곧 제가 경기에서 지곤 했는데,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멋진 설득력을 치를 수 있었죠. 뭐, 제가

막히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녜요. 어느 날은 '신들린 듯 잘 맞는다'

싶어도 프로에 비하면 영 못 미치는 실력이죠. 베스트 스코어는 1오버파 73타입니다.

<p

SENIOR CARE



집 안 위험 요소 체크리스트

-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
(작은 카펫, 전기장판, 애완동물 등)은 없는가?
-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은 없는가?
- 욕실 내에 노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는가?
- 샤워 부스가 없어 옥조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가?
- 짚다한 침구나 기구로 인해 이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은가?
- 집에 경사가 가파른 곳(계단 등)이나 문턱이 많은가?
- 실내 조도가 너무 어둡지 않은가?
- 침실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는가?

부모님을 혼자 두지 마세요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 누구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홀로 사는 노인은 특히 그렇다. 주변에 도와줄 이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자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모(75) 씨는 올 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작은 부주의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얼마 전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 이 된 것. 누워 있는 고양이의 몸에 밭이 걸려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몸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글로벌 시니어케어 기업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가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전 세계 5300여 명의 챠커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정돼 있지 않은 카펫(57.1%)이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경보 장치의 부재(46%), 냉장고 안의 상한 음식물(38.3%), 안전 손잡이가 없는 욕실(38.2%)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꼽혔다.

사고와 사건에 노출된 노인들

노인 대상 범죄도 심각한 위험 요소 중 하나다. 건강식 품을 비싼 값에 팔거나 거짓말로 거액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있지도 않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취업 사기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사기는 외로워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사기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없어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 '외로움 때문에 친절한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다', '질병 등으로 심신이 약해져 의지 할 사람이 필요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까지 손에 쥐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살고 있는 A(78) 씨는 손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다. 손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 목소리가 이상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녀 남편이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의심이 눈 놓듯 사라졌다. 마음이 다급해진 그녀는 바로 거액을 송금했고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쳤다.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집에서 벼려지는 각종 문서를 통해 유출된다.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및 영수증, 그

사기 피해 위험 척도 체크리스트

- 홀로 살고 있으며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다.
- 찾아오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 가족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다.
- 전화를 끊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루는 편이다.
-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다.
- 우편함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이 있다.
- 항상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 손주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다. 앞서 소개한 사기 피해자 A씨는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챠커는 대화, 산책, 요리 만들기 등을 함께하면서 그녀가 자책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돋는다. 아울러 홀로 사는 A씨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집안 일까지 맡아 처리한다.

Home Instead
시니어케어

(주)홈인스테드코리아는 세계 최대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미국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한국 법인으로 2008년에 설립된 업체. 본사와 동일한 케어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청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출 동행, 투약 관리, 식사 준비, 안전한 집 안 환경 유지, 심부름, 치매환자 돌보기의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이들에게 큰 힘을 되고 있다. 문의 02-3218-6243, www.homeinstead.co.kr



BULLETIN

존 배 '기억의 은신처' 展

재미 조각가 존 배 작가가 7년 만에 국내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개개의 철사를 융접해 완성된 존 배 작가의 작품은 동양적인 감수성으로 융접조각의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개인전에서 선과 면의 유기적인 조화를 표현한 7점의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4월 25일까지 갤러리 현대 신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2287-3500

박금자 등공예展

지난 30년간 국내외에서 등(簾)의 줄기로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킨 등공예가 박금자 작가의 대표적인 작업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헤아리 예술마을 북하우스 자동연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길체인볼관의 초청으로 기획된 것. "창 너머로 피고 자는 꽃을 보며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꿈. 게다가 등공예가 바로 그런 꿈입니다." 박 작가의 말이다. 밀리 등공예를 통해 각종 바구니를 형상화해낸 박 작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환경친화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 기간 중 박 작가와 함께 바구니를 만드는 이트클래스도 열린다. 4월 30일까지. 문의 031-949-9786



Last in a Finite Space, 2011, welded steel, 132(h) x 116.8 x 88.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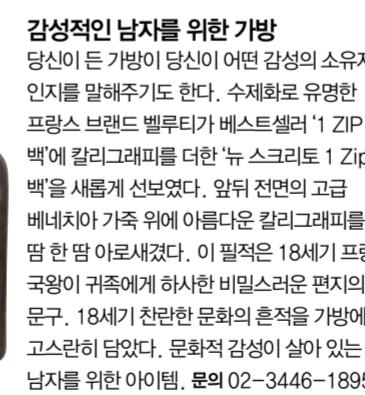
Champagne

봄의 정원을 닮은 샴페인

봄바람이 실랑이는 이맘때, 사랑하는 이를 위해 샴페인 한 병 준비하는 선스를 발휘해보자. 여기 미침 볼을 닮은 샴페인이 있다. 프랑스 샴페인 브랜드 빌 클리코 로제 스프링 가든 컬렉션을 내놨다. 레드와인을 블렌딩해 우아한 맛을 자랑하는 로제 샴페인에 화려한 꽃과 열매가 그려진 패키지를 더한 것이 특징.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빌 클리코 로제 스프링 가든 컬렉션은 '스프링 가든 박스'와 '스프링 가든 세트' 두 가지로 출시됐다. 문의 02-2188-5100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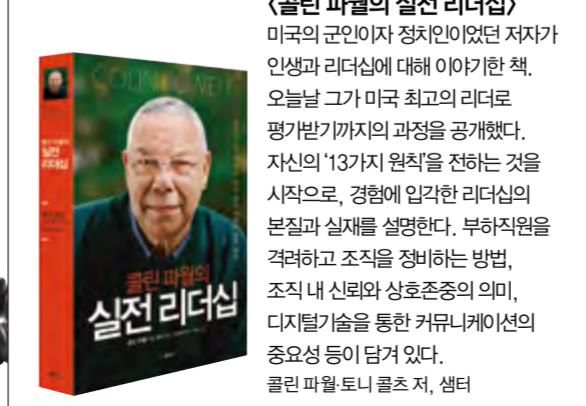


감성적인 남자를 위한 가방

당신이 든 가방이 당신이 어떤 감성의 소유자 인지를 말해줄지도 한다. 수제화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 벨루티가 베스트셀러 1 ZIP 백에 칼리그라피를 더한 '뉴 스크리토 1 ZIP 백'을 새롭게 선보였다. 잎위 전면의 고급 베니치아 가죽 위에 아름다운 칼리그라피를 한 달 한 달 새로 새겼다. 이 필적은 18세기 프랑스 국왕이 귀족에게 하사한 비밀스러운 편지의 문구. 18세기 친환경 문화의 흔적을 가방에 고스란히 담았다. 문화적 감성이 살아 있는 남자를 위한 아이템. 문의 02-3446-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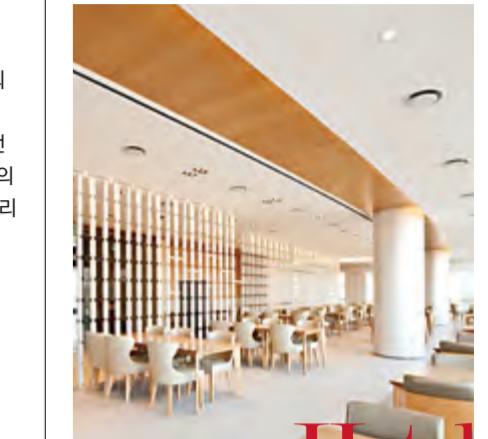
1일 1독

매일 한 편씩 중국 고전을 읽고 되새기는 금언. 고전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인생 이야기 중 151가지 금언을 주했다. 고전의 핵심적인 구절을 소개한 뒤 그에 얹힌 일화를 풀어내며 그 뜻을 짚어간다. 공자, 노자, 장자, 그리고 사마천, 이백 등 옛 성현들이 풀어놓은 성찰의 자세를 통해 관계의 어려움에서 실마리가 될 일침, 리더로서의 전략이 필요할 때 둘러구가 될 단서 등을 캐치할 수 있다. 김원중 저, 민음사



콜린 파월의 실전 리더십

미국의 군인이다 정치인으로 활동한 저자가 인생과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한 책. 오늘날 그가 미국 최고의 리더로 평가받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자신의 '13가지 원칙'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험에 입각한 리더십의 본질과 실재를 설명한다. 부하직원을 격려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방법, 조직 내 신뢰와 상호존중의 의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이 담겨 있다. 콜린 파월 토니 콜츠 저, 샘터



Hotel

전통美 살린 엠블 호텔 킨텍스

경기도 일산서구 킨텍스 2구역에 특1급 호텔 '엠블(MVL) 호텔 킨텍스'가 최근 문을 열었다. 20층 규모에 24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총 377개의 대규모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호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다른 아닌 '한국스타일' 때문. 한국식 온돌방을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안 스위트룸과 청사초롱, 등잔, 한복옷고를 등을 모티브로 삼은 내외관 인테리어가 보다 품격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중년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 최첨단 운동시설을 도입한 피트니스클럽과 아워수영장, 로하스(LOHAS) 콘센트의 뷔페 레스토랑 등도 관심을 모이고 있다. 문의 031-927-7700



Culture space

새로운 문화공간 '아프리카나' 개관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원했던 이들에겐 희소식. 지난 2월 중순 분당에 문을 연 갤러리 '아프리카나' 바로 그런 곳이다. 갤러리와 카페를 합친 '하이브리드형 갤러리'로 이어하면 된다. 아프리카나 총장석 대표는 열림과 소통을 강조하는데, 때문인지 다른 갤러리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엄격한 격식이 없다. 누구든 쉽게 들어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1층 카페에서는 아프리카 테마로 활동하고 있는 신미식 직기의 사진 10여 점과 커피, 유럽식 팬케이크를 즐길 수 있다. 2층 갤러리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서양화가 이익태 작가의 초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4월 30일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에서는 'Beam Flower' 랜턴들로 25점의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문의 031-708-8115



하이아이커의 철학여행

픽션으로 되살려낸 철학,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복제인간 복제인은 인간의 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간을 죽인 로이에게 과연 유품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가 각각의 사유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구성한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근대 철학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진경 저, 휴먼스

Books

Jet lag? What jet lag?

Fully flat beds in Executive First®.

하늘 위에서 누리는 최상의 안락함.

에어캐나다의 비즈니스 클래스, The Executive First Class를 경험하세요.

에어캐나다 비즈니스 클래스 특가

대표주요도시	왕복
밴쿠버/캘거리/에드몬튼	299만원~
토론토/뉴욕/워싱턴/보스톤/멕시코시티	399만원~
산티아고/상파울로/부에노스아이레스	550만원~

※상기 운임은 주중 왕복 운임이며, TAX 불포함입니다.



* 에어캐나다는 인천에서 밴쿠버, 그리고 토론토까지 직항을 운항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물론 미국, 중남미 주요 도시까지 편리한 연결 노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Best International
Airline in North America
three years in a row
now has four stars

에어캐나다 한국지점
서울) 02-3788-0100
부산) 051-463-7671
www.aircanada.co.kr

AIR CANADA
A STAR ALLIANCE MEMBER